

□ 기획기사 □

정보과학회 박사학위 소지 회원 분석

강원대학교 최형진*
성균관대학교 임영익**

● 목	차 ●
1. 서 언	3.3 연도별 박사학위 소지자 증가 분석
2. 전체 회원 분석	4.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2.1 회원별 분석	4.1 전공별 분석
2.2 남·여 회원 분석	4.2 직장별 분석
2.3 연령별 분석	4.3 연령별 분석
2.4 연도별 회원 증가 분석	4.4 학위 취득 지역별 분석
3. 회원중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4.5 학위 취득 연도별 분석
3.1 전체 회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4.6 남·여 회원 분석
3.2 정회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5. 결 언

1. 서 언

본 학회는 1973년에 창립되어 21년이 경과하면서 정보 통신 관련 학회로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수에 있어서도 7000명을 넘게 되었으며 3개 지부와 14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회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은 물론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본 호에서는 우선 학회에 등록된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하게 되었다. 학회에서는 금년 10월에 회원 명부를 단일 책자로 편찬하여 학회의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회원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는 1994년 7월을

기준으로 본 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고의 내용은 전체 회원에 대한 분석과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나누었다. 전체 회원에 대한 분석은 회원별 분류와 남녀 회원 비율, 세대별 분류를 하여 매년 회원들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회원 전체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 및 박사학위 소지자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전공별, 직장별, 학위 취득 지역별, 세대별, 학위 취득 연도별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2. 전체 회원 분석

본 회에 등록된 회원은 1994년 7월말을 기준으로 7036명이다. 전체 회원 7036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와 회원 구분 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회원
**증신회원

2.1 회원별 분석

회원별 분석은 학회에 제출한 입회 원서의 회원 구분 번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회원에 대하여 회원별로 분석한 도표를(그림 2.1)에 보인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신 회원은 1027명으로 14.6%, 정회원은 3797명으로 54.0%, 준회원은 2212명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다.

종신회원과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방법의 선택에 따른 회원 분류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보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 연구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회원의 수는 4824명으로 약 5000명의 전문 인력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연구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정보과학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준회원의 수는 2212명으로 1~2년이 지나면 정회원으로 거의 전환될 것이므로 오래지 않아 정회원의 수만도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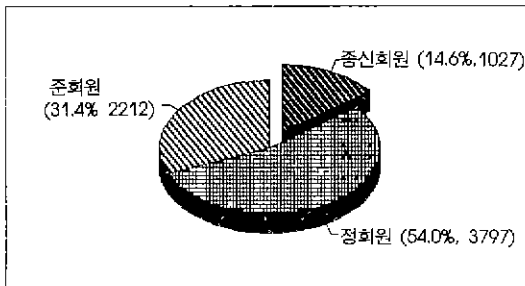


그림 2.1 회원별 비율

2.2 남·여 회원 분석

남녀 회원 분석은 입회 원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그림 2.2)에 보인다. (그림 2.2)를 보면 남자 회원이 5853명으로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회원이 970명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회원의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편이나 아직도 생각보다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회원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전문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여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회원이 제출한 입회 원서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회원의 수가 무려 213명이나 되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회원을 제외시키지 않은 이유는 가급적 원래 자료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2.3 연령별 분석

연령별 분석은 주민등록번호와 졸업 연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그림 2.3)에 보인다. (그림 2.3)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3034명으로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가 2875명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대와 30대를 합하면 무려 8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학회가 상당히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중진 연구 인력은 1127명으로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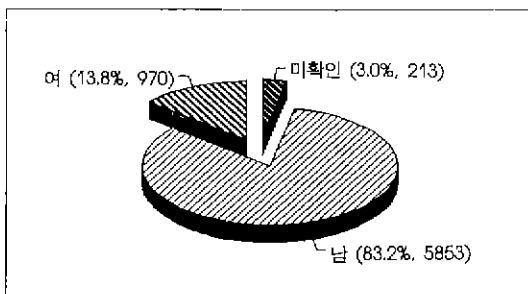


그림 2.2 남·여 회원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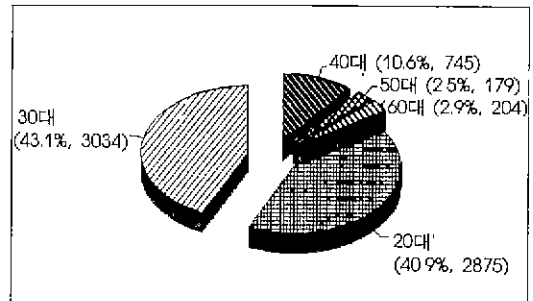


그림 2.3 연령별 비율

%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4 연도별 회원 증가 분석

연도별 회원 증가 분석은 회원의 구분 번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그림 2.4)에 보인다. (그림 2.4)를 보면 회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신회원을 포함한 정회원의 수는 학회 창립 10주년인 '83년에는 약 500명이었지만 불과 2년이 지난 '85년에는 정회원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85년 이후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준회원은 '8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91년에 약 1000명이 되었으며, 정회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에 구체적인 연도별 회원 증가수를 보인다. (표 2.1)을 보면 회원수는 86년에 1000명을 돌파한 이후 매년 600~700명씩 증가하다가 '90

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매년 100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금년 말경에는 약 7500명 정도까지 회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회원중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전체 회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 구분 번호를 이용하였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금년 7월말 기준으로 847명이며, 아직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약 9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 전체 회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그림 3.1)은 전체 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본 학회에 등록된 총 박사학위 소지자 수는 847명으로 전체 회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정회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중신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4824명 중에서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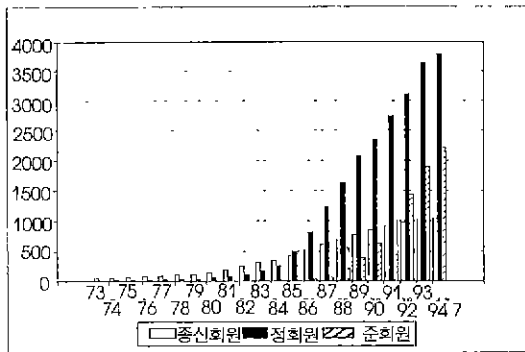


그림 2.4 연도별 회원 증가 비율

표 2.1 연도별 회원 증가 분석표

연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중신회원	43	46	59	76	82	99	107	143	187	258	311
정	3	5	15	16	27	27	32	55	70	106	170
학생	0	0	0	0	0	0	0	0	0	0	2
계	46	53	74	92	109	126	139	198	257	364	483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중신회원	348	429	526	613	684	766	851	925	972	1021	1027
정	254	491	815	1241	1631	2017	2335	2740	3118	3539	3797
학생	5	11	33	55	215	1396	641	972	1441	1895	2212
계	607	931	1374	1909	2530	3179	3827	4637	5531	6455	7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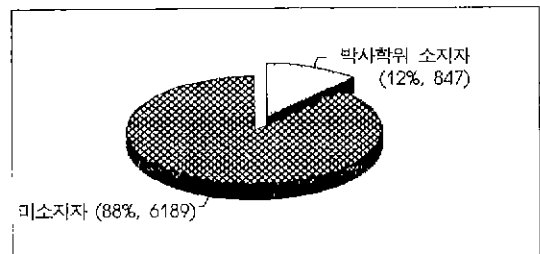


그림 3.1 전체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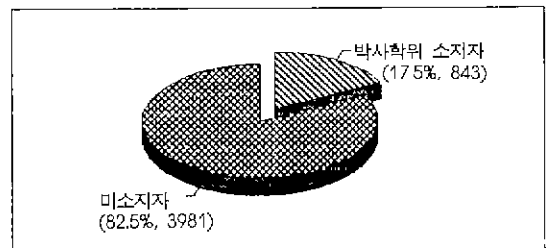


그림 3.2 정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사학위 소지자는 843명으로 17.5%이며 전체 회원과 비교한 비율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분석 결과를 (그림 3.2)에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부분 정회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3.3 연도별 박사학위 소지자수 분석

(그림 3.3)에 정회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이며, '84년 이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얼마되지 않아 '85년부터 분석을 하였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회원 대비로 보면 계속 조금씩 비율이 감소하다가 '9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박사학위 소지자 증가 추세표를 (표 3.1)에 보인다. (표 3.1)을 보면 '85년에 234명이었던 학위 소지자가 90년에 500명을 돌파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약 900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에는 매년 50~70명 정도 증가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년 90명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 소지 회원수의 증가율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90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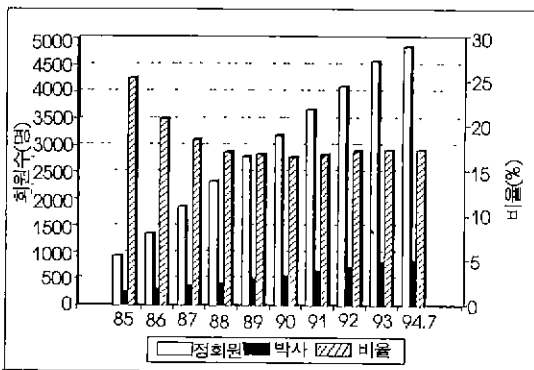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박사학위 소지자 증가 추세

표 3.1 연도별 학위 소지자 증가 분석표

인원~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7
정회원수	920	1341	1854	2315	2783	3186	3665	4090	4560	4824
박사수 (증가율)	234 (20.1%)	281 (22.4%)	344 (18.0%)	399 (18.8%)	474 (11.8%)	530 (17.2%)	621 (14.3%)	710 (12.3%)	797 (6.3%+α)	843 (-)
비율(%)	25.4	21.0	18.6	17.2	17.0	16.6	16.9	17.4	17.5	17.5

4. 박사학위 소지자 분석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학회 전체 회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회의 전체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994년 7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회원 7036명이며 박사학위 소지 회원의 총수는 847명(전체회원의 1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회원 4824명중 약 17.5%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이들 847명의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세부 전공 및 현 직장, 연령, 성, 학위 취득 지역, 학위 취득 연도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

4.1 전공별 분석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에 대한 전공별 분포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정보과학, 전산과학 관련 연구 분야를 (표 4.1)에서와 같이 총 12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연구 분야를 분류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분류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한국정보과학회의 각종 연구회(SIG)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각 회원들의 전공분야는 1994년 10월에 발행된 정보과학회 회원명부의 관심분야란을 참고하였다.

1994년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전공별 인원수를 검토한 결과 (그림 4.1)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자료가 없었던 91명의 회원은 제외하고 전공분야가 명시된 나머지 756명의 회원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박사학위 소지 회원의 약 1/3 정도인 33.1%가 인공지능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주 관심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어서 컴퓨터 구조 및 병렬처리가 12.9%,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가 11.6%, 테이

표 4.1 전공분류표

Code	약어	전공
1	PL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
2	Alg	알고리즘, 자료구조
3	CA	컴퓨터 구조, 병진 처리
4	DB	데이터베이스
5	OS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6	Com	정보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7	SE	소프트웨어 공학, HCI
8	AI	인공지능, Neuro-Computing,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CAD/CAM
9	CAI	전산 교육
10	TC	계산이론, 자동이론(Automata), 수치해석
11	KOR	한국어 정보처리
12	Etc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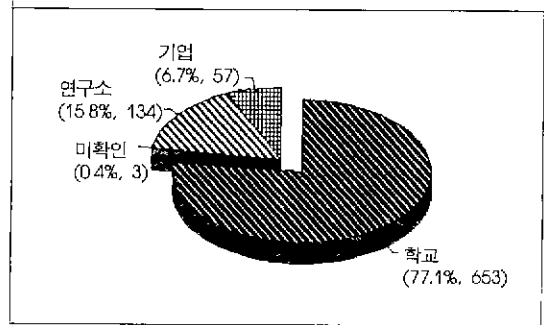


그림 4.2 직장별 분포(1994년 7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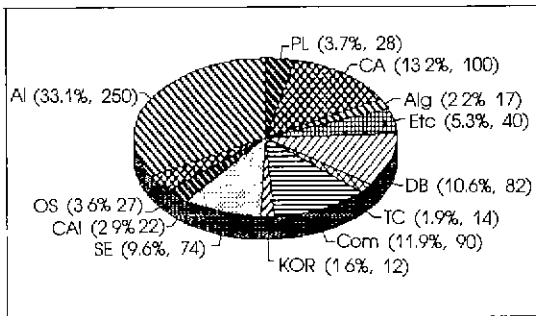


그림 4.1 전공별 분포(1994년 7월말 기준)

타베이스가 10.6%, 소프트웨어 공학이 9.6% 등의 순서로 회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어 정보처리 분야와 컴퓨터 이론 분야, 알고리즘 분야, 전산교육 분야,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의 전공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직장별 분석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직장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장을 학교, 국·공립 연구소, 기업,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각 직장별 박사학위 소지 회원의 수를 검토한 결과 학교에 근무하는 회원

들의 수가 77.1%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 연구소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수가 15.8%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수가 6.7%로 타 직장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표 4.2)는 각 직장별 전공자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를 전공한 학위 소지 회원의 89.3%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한 학위 소지 회원들은 연구소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약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공한 학위 소지 회원의 25.6%가 연구소 및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연령별 분석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연령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나이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의 회원 수를 조사한 결과 30대가 총 847명중 451명으로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표 4.2 직장/전공 분포표

직장 \ 전공	PL	Alg	CA	DB	OS	Com	SE	AI	CAI	TC	KOR	Etc	미확인	계
학교	25	14	83	61	22	64	56	202	17	12	9	30	58	653
연구소	3	2	12	18	3	21	10	26	4	2	3	9	21	134
기업	0	1	5	3	2	5	7	21	1	0	0	1	11	57
미확인	0	0	0	0	0	0	1	1	0	0	0	0	1	3
계	28	17	100	82	27	90	74	250	22	14	12	40	91	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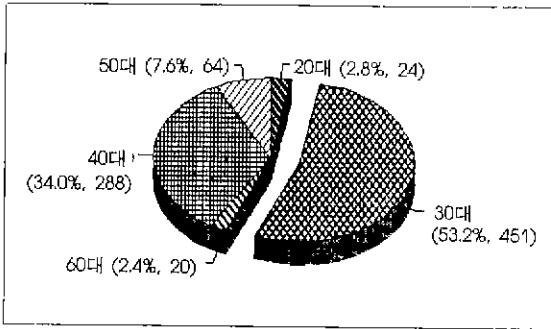


그림 4.3 연령별 분포(1994년 7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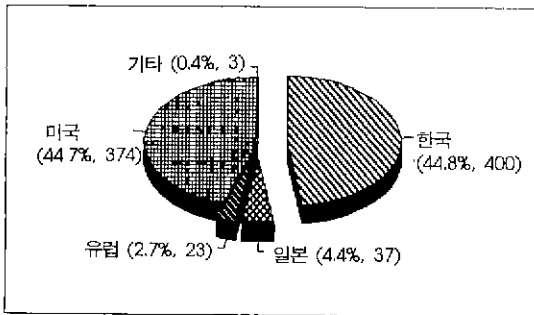


그림 4.4 학위 취득 지역별 분포(1994년 7월말 기준)

40대가 34.0%, 50대가 7.6%, 20대가 2.8%, 60대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4.4 학위 취득 지역별 분석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학위 취득 지역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 지역을 알 수 없는 10명(1.2%)의 회원을 제외한 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그림 4.4). 이 중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회원 수가 400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의 수가 374명(44.7%)으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국내와 미국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합계는 총 박사학위 소지자 수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이 4.4%,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이 2.7%, 그외의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이 0.4%로 나타났다.

표 4.3 학위취득지역/직장 분포표

지역	회차	연구소	기업	미확인	계
한국	337	40	23	0	400
미국	270	75	29	0	374
일본	25	10	1	1	37
유럽	14	8	0	1	23
기타	2	0	1	0	3
미확인	5	1	3	1	10
계	653	134	57	3	847

또한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학위자의 경우 84.3%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가 국·공립 연구소, 6% 정도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학위자(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우는 71.2%가 학교에서 근무중이고 21.3%가 국·공립 연구소, 7% 정도가 기업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 학위자의 국·공립 연구소 취업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는 박사 회원들의 학위 취득 지역과 전공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회원중 37.8%가 인공지능 및 유사 분야를 전공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 분야와 전산교육 분야는 국내 학위자의 비율이 각각 67.9%, 6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 이론 분야는 미국 학위자의 비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5 학위 취득 연도별 분석

각 연대별로 학위 취득자의 수 및 이의 증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대를 1965년부터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그림 4.5). 1980년도 이후를 5년단위로 볼 때 대체적으로 학위 취득자의 수가 전 5년에 비해 3배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매년 23.7% 정도씩 학위 취득자가 증가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표 4.5)는 각 연도별로 배출된 학위 취득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전공의 학위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어 정보처리 분야의 학위자들이 매년 거의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가지 특징으로 보인다. 1986년 이후에는

표 4.4 학위취득지역/전공 분포표

지역/전공	PL	Alg	CA	DB	OS	Com	SE	AI	CAI	TC	KOR	Etc	미확인	계
한국	19	5	54	41	16	40	36	101	15	4	6	18	45	400
미국	9	10	41	34	9	44	32	125	7	10	4	20	29	374
일본	0	1	2	2	1	4	3	14	0	0	2	0	8	37
유럽	0	0	3	3	1	2	2	8	0	0	0	2	2	23
기타	0	1	0	1	0	0	0	1	0	0	0	0	0	3
미확인	0	0	0	1	0	0	1	1	0	0	0	0	7	10
계	28	17	100	82	27	90	74	250	22	14	12	40	91	847

인공지능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한 회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아직도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컴퓨터 이론 분야는 '90년대에 들어와 전공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위 취득자들의 취업 형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학위 연도와 직장과의 상관 관계를 (표 4.6)에 보인다. 이를 보면 '80년대 전반부에 학위를 취득한 회원중에는 학교에 취업한 인원이 82명, 국·공립 연구소에 취업한 인원이 30명이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학교에 취업한 회원들이 294명으로 약 259% 증가하였고, 국·공립 연구소에 취업한 회원들은 43명으로 43% 증가하는데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체에 취업하는 회원들도 그 절대적인 수는 적으나 약 214% 증가하고 있다. 이는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학회에 국·공립 연구소나 기업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음을 볼 때(그림 4.2 참조) 커다란 의미를 갖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표 4.7)은 연도별 학위 취득 지역의 분포를 보여 준다. 1980년도 이후를 보면 유럽 지역과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의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의 수는 '80년대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 179%증가하였고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회원들의 수는 같은 기간동안 266%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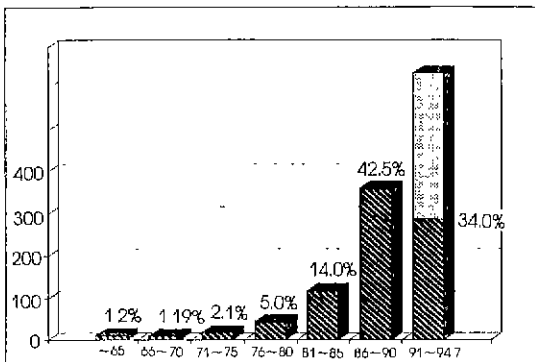


그림 4.5 학위 취득 연도별 분포

4.6 남·여 회원 분석

정보과학회의 박사학위 소지회원중 남·여 회

표 4.5 학위취득연도/전공 분포표

연도\전공	PL	Alg	CA	DB	OS	Com	SE	AI	CAI	TC	KOR	Etc	미확인	계
~65	0	0	0	0	0	0	0	2	0	0	0	0	8	10
66~70	0	0	0	0	0	0	0	2	0	1	2	0	4	9
71~75	0	1	1	0	0	3	0	5	1	0	0	3	4	18
76~80	0	1	1	1	2	5	3	10	2	2	2	4	10	43
81~85	6	0	19	8	3	13	9	29	2	2	1	5	22	119
86~90	12	9	43	37	12	42	31	111	10	1	3	19	30	360
91~94.7	10	6	36	36	10	27	31	91	7	8	4	9	13	288
계	28	17	100	82	27	90	74	250	22	14	12	40	91	847

표 4.6 학위취득연도/직장 분포표

연도	직장	학교	연구소	기업	미확인	계
~65		5	2	2	1	10
66~70		6	2	1	0	9
71~75		11	6	1	0	18
76~80		28	11	4	0	43
81~85		82	30	7	0	119
86~90		294	43	22	1	360
91~94.7		227	40	20	1	288
계		653	134	57	3	847

표 4.7 학위취득연도/학위취득지역 분포

연도	지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미확인	계
~65		1	4	0	0	0	5	10
66~70		0	7	1	0	1	0	9
71~75		6	11	0	1	0	0	18
76~80		14	22	4	3	0	0	43
81~85		47	58	6	7	0	1	119
86~90		172	162	15	8	0	3	360
91~94.7		160	110	11	4	2	1	288
계		400	374	37	23	3	10	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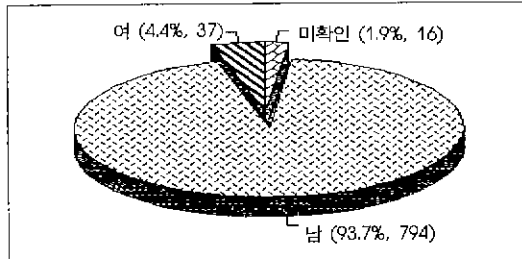


그림 4.6 남·회원별 분포

원 비율을 (그림 4.6)에서 보여주고 있다. 박사 학위 소지 회원 847명중 93.7%인 794명이 남자 회원으로 밝혀졌으며, 여자 회원은 37명으로 4.4%로 밝혀졌다. 전체 회원중 미확인 회원수를 제외한 여자 회원들의 수가 13.8%인 것을 감안하면 여자 회원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 결 언

본 학회가 창립된지 22년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전체 회원 수가 7000명을 넘어섰고 박사학위 소지 회원의 수도 머지않아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학회로서 학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떠한 전공을 하고 있는지, 어느 세대의 회원 수가 어느정도 많은지, 회원의 수는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에 대한 학위취득 지역, 학위취득 연도, 주전공 분야, 현 직업 등에 대해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학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분석자료는 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학회 외부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의 전공 분야가 각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몇몇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내와 미국지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의 비율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77% 정도의 회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구소 및 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여회원들의 수가 매우 적음이 밝혀졌다. 연도별로 볼 때 전체 회원의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 회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박사학위 소지 회원수의 증가율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90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정회원 수와 비교했을 때의 박사학위 소지 회원수의 비율은 '90년도 이후에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회원 각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학위 취득이나 직장 등이 최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관한 자료가 수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년 10월에 발행하여 배포한 회원 명부를 참조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학회로 연락하여 해당 자료가 수정되도록 하여, 앞으로 이러한 분석이 보다 정확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박사학위 소지 회원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학사/석사 학위 소지 회원들이 국내의 정보과학 및 컴퓨터과학

인력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일이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몇년 단위로 계속 수행되어 국내의 전문인력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관심분야: 인공지능, 화상처리, 패턴인식, 컴퓨터 그래픽

최형진

1979~1982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85~1987 동경공업대학 정보공학과 공학석사
 1987~1990 동경공업대학 정보공학과 공학박사
 1990~199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소 선임연구원
 1990~1992 충남대학교 강사
 1991~현재 강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조교수

엄영익



관심분야: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산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1979~1983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83~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산과학전공 석사
 1985~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산과학전공 박사
 1986~1992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 부교수
 1993~현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정보공학과 부교수

● 제 5회 고속통신망 워크샵 ●

- 일 자 : 1995. 2. 23(월)~26(목)
- 장 소 : 경주 보문단지 힐튼호텔
- 주 관 : 정보통신연구회
- 문 의 : 광운대 이동호 교수

Tel. 02-910-5216

Fax. 02-909-0998